

# 곡성군, 토종 씨앗으로 재배한 농산물로 건강 밥상 선보인다

###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프로 농사꾼' 토종 밥상 만들기 행사



오는 13일 곡성군 옥과면 설옥마을 유선각에서 토종 농산물로 차려낸 밥상을 맛볼 수 있는 행사가 펼쳐진다.

곡성군은 지난 5월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농사꾼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인과 젊은 농업인들은

토종 씨앗 재배기술을 전수 받아 토종작물을 직접 재배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땅 흘러 일군 토종작물을 수확하고, 오는 13일 토종밥상 차리기라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행사에서는 토종씨앗으로 재배한 작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을 시식해 볼 수 있다. 또한 옥과면 설옥마을 주민들과 학습자들은 토종 씨앗 재배기술을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교육결과로 얻게 된 토종씨앗을 전시하고, 작은 장터를 열어 그간의 성과물을 함께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여자는 토종씨앗 농가가 많이 생겨나 전통농법을 더욱 확산시켰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 5만 6천 톤급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 여수항 입항

대만에서 출발한 국제크루즈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가 승객과 승무원 1700여 명을 태우고 지난 8일 오전 여수항에 입항했다.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는 축구장 두 배에 해당하는 길이 220m 규모를 자랑했다.

이번에 여수를 찾은 방문객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별자유관광과 단체관광을 즐겼다.

여수시는 방문객에게 지역을 알리고 관광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종 행정 지원에 나섰다.

먼저 시는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이순신광장, 레일바이크, 예

슬랜드 등을 순회하는 무료 셔틀버스 10대를 운영했다.

셔틀버스에 중국어 통역도우미가 승차하여 여수관광 안내와 승하차를 도왔다.

또 중국어 입국심사도우미 10명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여수엑스포역·이순신광장·오동도 관광안내소에는 중국어 문화관광해설사 4명을 배치했다.

크루즈 승무원의 전통시장과 사후면세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크루즈터미널과 이순신광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따로 운행하고, 터미널 앞 개별자유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시 택시 승강장도 마련했다.

터미널 앞 특산물 판매대와 플라마켓, 떡거리 부스가 문을 열고, 예니·수니 캐리커와 한복도 우리의 사진촬영 이벤트는 큰 인기를 끌었다. 몇몇 특산물은 거듭하는 등 여수의 특산물이 대만관광객이 찾는 주요 구매 품목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여수소방서와 비상연락 체계도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일본 OCEAN DREAM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제크루즈 5대가 여수를 찾았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한국 수필문학의 대부, 매원 박연구 수필가 문학비 건립 제막식



담양군 수북면 출신 매원 박연구 수필가 문학비 제막식이 지난 7일 가족, 제자, 친구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 담빛예술창고 조각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수필가 매원(梅園) 박연구(1934~2003)는 40여 년의 문단활동 기간 '바보네 가게'와 '외가 만

들기' 등 문학사에 빛나는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한국수필문학진흥회장을 맡으며 수필이 본격적인 문학 장르로 우뚝 설 수 있게 위상 조각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에 지난해 4월 매원문학비건립추진위를 결성해 기금 조성 후

문학비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담양 담빛예술창고 조각공원에 세워진 비문은 책의 형상을 갖고 있다. 오른쪽에는 '고향 점경(點景)'에서가 왼쪽 페이지에는 '봄 앞을 할지언정'이 새겨져 있으며 위쪽에는 부조로 새긴 박연구의 얼굴이 자리해 있다.

매원과 광주고 동문인 소설가 문순태 씨는 "박연구 수필가는 담양, 아니 남도가 배출한 위대한 문학가다"며 "문학적 업적과 작품성에 비해 많이 조명되지 않았지만 이번 문학비 제막을 계기로 그의 작품이 널리 읽히고 남도의 수필 문학이 더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고흥군, 수산종자 방류로 어족자원 조성·소득 향상 기대

### 전북 종자 6만7000미 봉래면 염포지선에 방류



고흥군은 지난 8일 지역 주민, 어업인, 공무원 및 유관 단체 등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족자원 조성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소득 품종인 전북 종자 6만 7,000미를 고흥군 봉래면 염포지선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조업어장의 축소와 불법어업으로 인한 남획, 해양환경 변화(고수온, 온

난화 등)로 날이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전하고 바다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군은 올해 방류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6월 접봉어 7만미 방류를 시작으로 7월 감성돔 37만미, 대하 752만미, 돌돔 7만미, 이상 4종 799만미를 방류하였으며, 이번 행사에서 전북을 마지막으로 방류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방류한 종자들이 성장하면 실질적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어획량 증가로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류한 해역에 불법조업을 하지 않도록 방류해역의 어업인 및 어촌계와 협력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우리군 해역에 적합한 수산종묘 방류를 위해 2020년도 방류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해 추진 할 계획이다.

고흥=한윤섭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 구례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3차 추진

구례군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3차 추진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정상운영에 적합하고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의 체납 또한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맞춰 연식과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을 두고 있으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차량 연식(제작일자)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